

북구갑·서구갑 여론조사 30% 반영...여성·신인에 가산점

<10%> <20%>



총선 사전투표 모의시험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광주 북구 응봉동주민센터 직원들이 15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당 광주 6곳 18~20일 총선 '숙의배심원단' 경선

국민의당이 광주지역 20대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해 첫 도입한 '숙의(熟議)배심원단' 경선 일정과 물이 확정됐다.

15일 국민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당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단수 후보 공천지역인 동남구 갑과 서구갑을 제외한 6곳의 선거구에서 숙의배심원단 경선을 실시한다.

18일 오후 7시 북구갑을 시작으로, 19일에는 서구갑과 광산구갑, 북구를 선거구를, 20일에는 광산구 갑과 동남구갑 경선을 한다.

경선 후보는 ▲동남구갑 (장병완·서정성·정진욱) ▲서구갑(송기석·이건태·정용화) ▲북구갑(국성근·김경진·김유진) ▲북구을(김하중·최경환) ▲광산갑(김동철·김경록·윤봉근) ▲광산을(권은희·고원·최선욱) 등이다. 천정배 공동대표(서구갑)와 박주선 최고위원(동·남구갑)의 지역구는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현역 의원이 없는 북구갑과 서구갑은 숙의배심원단 평가(70%)와 여론조사(30%)가 혼용된다. 공천이 배제된 임내현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지역구인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숙의배심원단 평가가 100% 반영된다. 다만, 광주 북구갑은 천정배 공동대표가 단수공천되면서 갑작스럽게 서구갑에서 지역구를 옮긴 김하중 예비후보를 감안해 현역 의원이 없지만 100% 배심원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를 혼용하는 지역구는 배심원단 경선에 앞서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배심원단 1000명 선발

선거구별 100명씩 평가 참여

최다 40% 못 넘으면 결선투표

■국민의당 광주 숙의배심원단 경선 일정

회차	일시	선거구	후보자수(명)	세부경선 방법(%)
1차	18(금), 19:00	북구갑	3	숙의배심원단(70)+여론조사(30)
2차	19(토), 10:00	서구갑	3	숙의배심원단(70)+여론조사(30)
3차	19(토), 15:00	광산구갑	3	숙의배심원단(100)
4차	19(토), 19:00	북구을	2	숙의배심원단(100)
5차	20(일), 10:00	광산을	3	숙의배심원단(100)
6차	20(일), 15:00	동남구갑	3	숙의배심원단(100)

이번 경선에서는 당 공직자후보추천 시행세칙에 따라 여성 10%, 정치신인 20%, 정치신인이면서 여성 또는 중증장애인·청년(40세 미만)인 경우 최고 25%의 가산점이 있다.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숙의배심원단은 일반 유권자 50%, 학계 20%, 시민사회단체 15%, 직능단체 15%

숙의배심원단 경선
배심원단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후보들의 정책 토론과 질의응답을 지켜본 뒤 분과별 숙의를 거쳐 투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율로 구성한다. 배심원단은 전체 1000명을 선발해 선거구별 100명씩 모두 600명이 배심원단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가 40%를 넘지 않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한다.

현재 배심원단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 구성의 공정성 여부도 경선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광역 배심원단 100명이 6개 선거구 후보를 모두 결정한다는 소문이 이날 한때 돌아 예비후보들이 동요했으나 낱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관계자는 "비상식적"이라며 "100명이 6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종 규모와 배심원제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지도가 앞선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여론조사를 혼용하지 않고 숙의배심원단만 적용하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면서 "결선투표 도입도 3차 구도에서 신인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1차 경선 현역 10명중 4명 탈락

유승희·김경협·은수미 등 5명 공천...광주·전남 내일부터 경선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천을 위한 1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다. 광주·전남 지역 경선은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더민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밤 현역의원 포함 경선지역 10곳과 원외 경선지역 7곳 등 모두 1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현역 의원의 10명 가운데 4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우선 제주을에서는 3선의 김우남 의원이 49.7%를 득표해, 50.3%를 얻은 오영훈 전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패했다.

서울 양천갑에서는 조선의 김기준 의원(45.8% 득표)이 황희 전 노무현대통령비서실 행정관(59.6%, 신인 10% 가산점 포함)에게 패했고, 강북을에서는 조선의 유대운 의원(33.6%)이 박용진 전 대변인(66.4%)에게 승리를 내줬다. 전주을에서는 조선의 이상직 의원이 48.3%를 얻어 최형재 전 전북대 초빙교수(51.7%)에게 밀렸다.

반대로 경선 참여 의원을 가운데 5명은 공천을 확정 지었다. 서울 성북갑 재선의원인 유승희 의원은 62.62% 이상현 전 웰포유 대표이사(37.38%)를 따돌렸고, 부천시 원미갑 조선 김경협 의원은 72.56%를 얻어 27.44%에 그친 신종철 전 경실련 중앙위원에 앞섰다. 비례대표 조선 은수미 의원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76.6%를 얻어 안성욱 전 대검 중수부 검사(33.4%)에 앞섰고, 재선의 이찬열 의원도 수원갑에서 57.23%의 득표율로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47.05%)에 승리했다. 제주갑에서는 3선의 강창일 의원(56.5%)이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장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다.

3명의 예비후보가 맞붙은 원주·진안·무주·장수에서는 조선의 박민수 의원이 34.5%를 얻어, 38.5%를 득표한 안호영 변호사와 15일 결선투표를 치렀다. 또 원외지역 가운데 '계파대리진' 양상을 보여 관심을 끈 경계 고양을의 경우 순화규계로 분류되는 광주 출신 송두영 전 한국일보 기자(35.1%)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측근인 정재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수석(34.29%)도 이날 결선을 치렀다. 문재인 전 대표 측 인사인 문용식 디지털소통위원장은 탈락했다.

한편, 당 선관위는 광주·전남지역 경선을 광주 북구을 등 경선이 빨리 확정된 선거구로 시작으로 오는 17일부터 시작해 늦어도 20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광주 북구갑과 광산갑, 영암·무안·신안, 순천, 고흥·보성·장흥·강진 경선은 17~18일 안심번호 ARS 투표를 통해 실시된다. 경선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구별로 5만명의 안심번호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방식) 전화로 통해 선거인단 모집과 동시에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호 투표수가 300명을 초과할 경우에만 투표 결과를 인정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남도문예 르네상스' 첫 발 뒀다

동양화 비엔날레 함께...한국관광문화진흥원에 기본계획 용역

전남 문화예술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지역부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남도의 '남도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 한국관광문화진흥원에 남도문예 르네상스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동양화 비엔날레(가칭)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맡겨 15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그러나 연구용역기간이 5개월에 불과해 현장조사를 통한 새로운 문예 요소를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낙연 전남지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실장이 기본용역의 방향을 설명하는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남도문예 르네상스 기본구상 용역은 중장기 방향, 분야별 발전 전략, 핵심사업 발굴, 재정계획 등을, 동양화 비엔날레 기본계획은 상징적 명칭, 추진 체계, 프로그램,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관람객 유치 방안 등을 담게 된다. 모두 오는 6월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비엔날레, 전통정원, 도예, 다도, 음악, 연극, 문예일반 등 13명의 각계 전문가와 전남도의회 의원, 광주전남 연구원, 한국예총전남연합회, 남도예술은행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전남도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했으며, 산림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문화예술과 등 관련 실과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번 연구용역에 대비했다.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JOY TOUR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카메리아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벚꽃+온천 여행~!!

출발일 3/29, 4/3, 4/10, 4/12, 4/18, 4/24, 5/8, 5/14, 5/22, 5/29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아가가세 고급 팬션 온천여행 4일 ₩499,000~
▶ [품격] 전통료칸 온천 여행 4일 ₩559,000~
▶ [고품격] 전통료칸 온천 여행 + 후쿠오카 특급 4일 ₩599,000~

포함 : 선박왕복, 유류세, 부두세, 일정표상의 일정, 입장료, 가이드비, 국내수송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장가계 전세기!!!

▶출발일 3월 9일 ~ 6월 1일까지 매주 수, 토요일

신속 무안-장가계	3박5일 ₩ 699,000 4박6일 ₩ 699,000
품격 무안-장가계	3박5일 ₩1,050,000 4박6일 ₩1,090,000
고품격 무안-장가계	3박5일 ₩1,150,000 4박6일 ₩1,190,000

불포함 : 개인경비, 싱글차지, 가이드&가이드비(50%), 단체비(₩35,000)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면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 개인경비, 매니팅, 선택관광

무안-상해, 황산, 항주 특가!!

▶3/30 단 하루!! 무안-상해, 황산, 항주 4일 ₩599,000
▶3/28 단 하루!! 무안-상해, 황산, 항주 5일 ₩649,000

포함 : 특전 1. 전일정 존속급호텔사음
2. 현지 특별식제공 [동파육, 사천요리, 삼겹살등 한식]
3. 발마사지포함 4. 항주서호유람선, 송성가우쇼 포함
5. 기사/가이드 포함
불포함 : 매니팅 및 기타 개인비용, 중국단체차비 (₩35,000)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매니팅,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팀(₩10,000), 현지직접관광, 석식2회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7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팀(₩10,000), 현지직접관광, 석식2회
▶[선박] 장흥-제주도 3일 ₩20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팀(₩10,000), 현지직접관광, 석식2회
▶광주-울릉도 3일 ₩345,000~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45,000~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따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동조인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원금 가입(여행상품:1만원, 국내상품: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체결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예약합니다. ●경비(숙박, 식사, 가이드비, 선택관광, 각종 비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